



피부 언어 달라도 한 가족...

조계종 마하이주민주원단체협의회와 국제전법단은 지난 6일 동대부고 실내체육관에서 제8회 이주민 어울림 한마당을 열고 체육대회와 각종 문화행사를 함께하며 화합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 관련기사 2면

신재호 기자 air501@ibulgyo.com

발우공양, 세계가 인정한 레스토랑 됐다

(사찰음식전문점)

최고권위 미쉐린 가이드

‘서울 2017’ 별 하나 획득

조계종 불교문화사업단(단장 성효스님) 산하 사찰음식전문점 ‘발우공양’이 세계 최고 권위의 레스토랑 평가 안내서인 <미쉐린(미슐랭, Michelin) 가이드>의 ‘미쉐린 스타 레스토랑’에 선정됐다.

미쉐린 코리아는 지난 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미쉐린 가이드 서울 2017> 발간 행사와 책에 기재될 식당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했다. 이 안내서는 세계에서 28번째, 아시아에서 일본, 홍콩·마카오, 싱가포르, 상하이에 이어 5번째로 발간됐다.

이 자리에서 발우공양은 장성 백양사 전진암 주지 정관스님에게 사찰음식을 전수받은 강민

구 셰프가 운영하는 ‘밍글스’ 등 서울 소재 19개 레스토랑과 함께 ‘요리가 훌륭한 식당’인 1스타 레스토랑에 이름을 올렸다. 종단이 사찰음식 대중화를 위해 지난 2009년 설립한 ‘발우공양’은 고기, 해산물, 오신채를 사용하지 않고 사찰에서 직접 만든 고추장, 된장, 간장과 제철을 식을 사용해 전통산사의 맛을 사부대중에게 전하고 있다.

불교문화사업단장 성효스님은 “미쉐린 가이드 스타 레스토랑에 선정된 것은 그 동안 사찰음식문화의 계승과 대중화를 위해 꾸준히 매진해온 노력의 결과며, 세계적으로 사찰음식을 인정받은 계기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발

우공양은 사찰에서 전승되고 있는 음식문화를 알리고 사찰음식의 원형을 발굴해 전통적인 조리법으로 만들어진 음식을 제공하는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한식당 ‘라연’과 ‘가운’이 ‘요리가 매우 훌륭해 맛을 보기 위해 특별한 여행을 떠날 가치가 있는 식당’인 3스타 레스토랑, ‘돛간’ ‘권숙수’ ‘피에르 가니에르’가 ‘요리가 훌륭해 멀리 찾아갈만한 식당’인 2스타 레스토랑의 영예를 안았다.

‘미쉐린 스타’는 세계적인 타이어그룹인 미쉐린이 1900년부터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훌륭한 레스토랑에 부여하는 평가로 일반인

들에게는 ‘미슐랭 가이드’로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24곳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1곳은 한식당으로 불고기나 비빔밥 등 기존의 한식 메뉴에서 벗어나 사찰음식 등 다양한 음식에 주목한 것이 특징이다.

마이클 엘리스 미쉐린가이드 인터내셔널 디렉터는 “평가위원들 모두가 서울의 다양한 레스토랑에서 경험했던 새로운 맛과 창의적인 요리에 감탄했다”면서 “다채로운 제철 식재료를 활용해 훌륭한 음식을 만들어내는 서울의 첫 번째 미쉐린 스타 레스토랑과 셰프들에게 축하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허정철 기자 hjc@ibulgyo.com

社告

2017 불교신문 신춘문에 공모

○응모기간: 2016년 11월 7일(월) ~ 12월 8일(목)

○응모대상: 불교문화에 관심이 깊은 신진작가

○공모분야

- 단편소설 부문: 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또는 A4용지(아래 한글, 11포인트) 10매 내외
- 평론부문: 200자 원고지 60매 내외 또는 A4용지(아래 한글, 11포인트) 8매 내외
- 동화 부문: 200자 원고지 30매 내외 또는 A4용지(아래 한글, 11포인트) 4매 내외
- 시·시조 부문(6편 이내)

○상금

- 단편소설 500만원 - 평론 300만원
- 동화 300만원 - 시·시조 300만원

* 당선작은 각 분야에서 1편을 선정하며, 부득이한 경우 당선작 상금의 반액을 지급하는 ‘가작’ 선정

* 관련법에 의한 제세공과금은 수상자 부담임

○당선작 발표: 2017년 1월 1일 신년특집호(당선작에 한해 개별통보)

○접수처: (03144)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67(건자동) 전법회관 5층 불교신문사 신춘문예담당

○유의사항(상세한 내용 본지 홈페이지 참조)

수상작에 대한 판권은 본사가 소유합니다. 우편접수와 내방접수만 가능합니다. 단, 해외에서 응모하는 분들에 한해서만 인터넷 접수를 받습니다. (해외에서 접수 시 한국 내 연락 가능한 연락처 필히 기재요망) (buc22@ibulgyo.com)

○문의: (02)730-4489(신춘문에 담당)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불사 기금모연**

• ARS모연: 060-700-1027
 • 문자모연: #25401로 문자메시지 전송
 (문자메시지 장에 사찰명 또는 개인이름 입력)
 • 모연계좌: 농협 301-0160-9713-71 (계미안불교조계종유지재단)
 • 모연문의: 02-730-6690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불사 추진위원회

월정사 석조보살좌상 ‘보물’서 ‘국보’로 승격

국가지정문화재 6건 지정 예고

보물 139호 월정사 석조보살좌상과 보물 제398호 <월인천강지곡> 권상(卷上)이 국보로 승격된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지난 8일 보물 2건과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금강산 출토 이성계 발원 사리장엄구 일괄’ 등 6건을 국가지정문화재 국보 및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월정사 성보박물관으로 옮기기 이전 석조보살좌상.

월정사 석조보살좌상은 높이 180cm로, 둥근 연화대좌 위에 왼쪽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을 가슴 앞으로 모은 자세이다. 손에는 뭔가를 들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흔적만 남아 있다. 머리에는 보관을 쓰고 귀걸이, 팔찌, 목걸이 등으로 장식돼 있다. 국보 48호인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남쪽앞에 놓여 있는데, 탑을 향해 공양을 올리는 모습이라 탑과 공양보살상이 본래 하나의 구성으로 만들어졌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탑과 함께 공양보살상을 조성한 예는 월정사 외에도 강릉 신복사지 삼층석탑과 공양자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탑전(塔前) 공양보살상은 이전에는 찾기 힘든 고려 전기적 특징인 동시에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우리나라만의 독창적인 도상과 구성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지닌다”며 “이미 국보로 지정된 석탑과 묶어 국보로 지정하면 조성 당시 조형적, 신앙적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월인천강지곡>은 세종이 아내인 소헌왕후의 명복을 빌며 직접 지은 찬불가로, 교육출판 전문기업 미래엔이 소장하고 있다. 훈민정음 창제 이후 가장 빠른 시기에 지어져 활자로 간행된 점에서 창제 후 초기의 국어학 연구와 출판인쇄사를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문헌으로 평가된다.

보물로 지정 예고된 ‘금강산 출토 이성계 발원 사리장엄구 일괄’은 태조 이성계가 조선건국 전 신하와 함께 발원한 사리장엄구이다. 이밖에 6·25전쟁 중 반출됐다 지난 2014년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방한 때 돌려받은 국새(國璽) 황제지보(皇帝之寶) 유서지보(諭書之寶) 준명지보(准明之寶), 시선집 <엽주명현십초시(夾注名賢十抄詩)> 박동형 초상 및 한(函)이 보물로 지정 예고됐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예정이다.

여현경 기자 eonardo@ibulgyo.com

www.ktcca.com

2016 서울

국제 차·공예 문화 박람회

International Tea & Craft Culture Expo
 國際茶工藝文化博覽會



2016. 11. 24(목) ~ 11. 27(일)

서울 무역전시컨벤션센터 SETEC

제1전시실, 제2전시실 /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 4번출구

| 주최 | 사단법인한국차공예문화협회 | 주관 | 한국차공예문화협회전시추진위원회